

『국만이 국어 개념·심화』

<미리 보는 목차>

1. 글(Text)에 대하여
2. 문제 풀이·판단력에 대하여
3. 시문학에 대하여
4. 소설문학에 대하여
5. 수필·극문학에 대하여
6. 고전문학에 대하여
7. 비문학에 대하여
8. 화법과 작문에 대하여
9. 글을 마치며

※ 각 장르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어와 방법론을 다룹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대치동 현장 강의와 인강, 1995년도 이후의 모든 평가원 수능·모의평가 및 선별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자습과 연구를 녹였습니다. 이 개념자료를 기준으로 본인들만의 색깔이 있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보세요. 올해 수능 국어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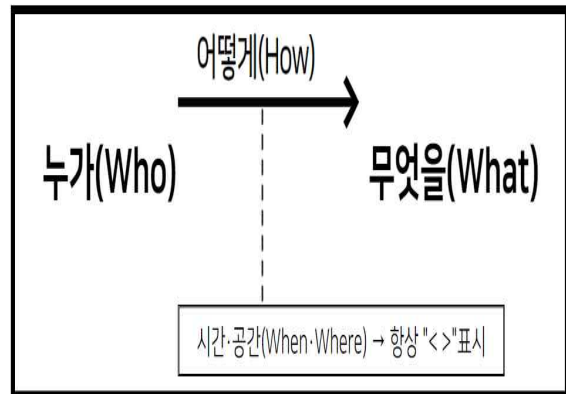
※ 화법과 작문의 경우, 이번에 자료를 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1995년도 기출문제부터는 아니고,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문제 + 교과서**를 직접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풀이법과 필수개념어를 제시합니다.

※ 언어와 매체의 경우, 당해연도 인강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이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보단 두꺼운 교재에 단권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부터 썼던 오찬세t 문법 교재와 강민철t 언매 인강교재에 단권화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체 관련해서는 시간 되는데로 블로그에 무료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글(Text)”에 대하여

“글(Text)”의 육하원칙 :

- ㉠누가(who) = 글쓴이 or 가상의 인물
- ㉡언제·어디에서(when·where) = 시·공간
- ㉢무엇을·어떻게(What·How) = 내용과 표현 방법
- ㉣왜(Why) = 추론 문제. 1차 독해에선 x



왜(Why) - 추론 문제에서 나옴. 1차 독해에선 x

1) 기본 틀

① 이게 제가 글을 바라보는 ‘기본틀’입니다. 갈래(시, 소설, 비문학)에 따라 기본 틀을 변형하여 저만의 독해 방법을 일관되게 확립하려 노력하였습니다.

②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갈래별 독해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독해

① 독해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글의 주제라는 용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너 글 잘 읽니?”를 “너 글에 있는 모든 문장 완벽하게 이해하니?”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글 잘 읽는 능력은 “글의 주제 파악 능력”입니다.

로 바라본 원피스] [조로 외전 : 조로의 시각으로 바라본 원피스] 이런 느낌입니다. 애초에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자기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느낌인거죠.

⑧ 시점의 변화

· 예를 들어, ex1) 텍스트의 [A] 부분에서 [B] 부분으로, ex2) 텍스트의 [A] 부분이 <보기>의 서술로 변화할 때 옳은 설명을 묻는 방식입니다.

· 이후 다룰 ‘시점·인물 제시 방식에 따른 거리’까지 학습하면 완벽합니다(‘거리 개념’은 조금 후에 다룹니다).

(4) ‘서술자’의 인물 제시 방법 관련 개념어

① ‘인물’을 제시한다 =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②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 직접 제시 :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해 줌. 말하기(telling)라고도 표현하며,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문장을 구현함.

요약적 제시에 해당한다.

ex) 철수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Tip) 소설 문학에서의 요약적 제시 : ④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telling) ⑤사건의 경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

- 간접 제시 :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여줌. 보여주기(showing)라고도 표현하며, ‘장면 묘사’ or ‘인물의 언행’으로 구현함

ex) 철수는 추위에 떠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걱정하지 마. 많이 추웠지?”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Tip) 장면 묘사 : 기본적으로 묘사란,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자 감각적인 표현(5감을 이용한)을 말합니다.

서술자는 한 장면의 ⑥인물·사건·배경에 대

해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통으로 묶어 장면 묘사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참고> ⑥의 예시 :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

③ 직접 제시, 간접 제시의 상대적 특징 :

이 부분도 시점처럼 [A]→[B], [A]→[보기]로의 변화를 묻습니다.

- 직접 제시 : 서술의 진행 속도↑(빨라진다), 독자의 상상력↓(제한된다. 서술자가 직접 답을 주기 때문)

- 간접 제시 : 서술의 진행 속도↓(느려진다), 독자의 상상력↑(확장된다. 서술자가 단서만 주기 때문)

(5) ‘시점 & 인물제시방법’에 따른 거리 개념

① 거리의 기준

-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A) :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B) : 서술자가 독자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는가

-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C) : 독자가 등장인물을 얼마나 열심히 탐구해야 하는가

② A와 B는 함께 간다. 아는 만큼 말해주는 거 아니겠나.

③ C는 A·B가 멀면 가까워지고, A·B가 가까워지면 멀어진다(반비례 관계). 서술자가 말을 안 해주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그러다 보니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

④ 거리 개념 한방에 정리

시점	1인칭 주인공/ 3인칭 전지적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서술 방식	말하기 방식 (Telling)	보여주기 방식(Showing)
서술자-인물	가깝다	멀다
서술자-독자	가깝다	멀다
독자-인물	멀다	가깝다